

전북여성가족재단, 통합지원 플랫폼 가동

여성 능력 개발 · 양성평등 기반 가족친화사업 추진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 이하 재단)이 여성과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특별전북'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가족지원 서비스 광역 거점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를 재단이 수탁·운영하게 됨으로써 14개 시군 가족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1인가족, 다문화 가족 포함)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약·위기 가족지원 체계를 강화해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출범 2년을 맞은 재단은 도내 여성과 가족을 위한 교육·취업·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다기능 복합기관으로서 △여성 능력개발 및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일·생활균형문화 확산 △여성·가족 정책의제 발굴 △양성평등의식 확산 △통합 가족 서비스를 통한 보편적 가족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먼저,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1인 가구의 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활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다함께 싱글(single)방글(6~7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육아향상 교육 및 자녀 소통 프로그램인 프렌디스쿨(4~10월), 젠더문화축제(9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원스톱 일자리서비스(상담-훈련-취업-사후관리) 제공과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도내 기업에 일·생활균형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발굴하고, 워라벨 가족학교 등을 운영해 근로자 스스로

가 일·생활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어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시의성 있는 여성·가족 정책의제 발굴과 함께 성평등한 여성·가족분야 중장기 정책연구를 추진중이다.

올해는 지역 특성(여성, 가족, 일자리, 돌봄 등)에 따른 새로운 사회위험 예측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5개 기본과제 연구에 착수한다.

아울러 여성가족 정책 포럼 개최, 정기적 정책브리프 발간, 지역 연구기관들과 협업, 도 정책TF 참여 등 도민 맞춤형 여성정책을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의 회장기관으로서 4월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정기총회를 주관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공동으로 '여성폭력 통합지원 관련 거버넌스 구축 정책 간담회'를 추진한다. 6월 전라·제주 여성가족 네트워크 및 10월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공동 포럼에 참여해 젠더정책 관련 네트워크 사업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산골친구' 모집

20일까지 8개 분야 자원활동가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3월 3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올해 영화제와 함께할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모집한다. 영화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즐기며 자원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경험 때문에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산골친구'는, 올해도 영화제 기간 동안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며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산골친구' 모집 분야는 마케팅 지원을 비롯한 안내데스크, 굿즈샵, 물품보관소, 티캐투스, 상영관 운영, 관객 이벤트 진행, 콘텐츠 촬영까지 총 8개 분야로, 영화제 전 기간 동안 활동 가능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mjff.or.kr)에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추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5월 2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자원활동가 '산골친구'에게는 활동 기간 내 숙식 및 영화제 공식 유니폼과 기념품을 제공하며 활동 종료 후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무국 산골친구 담당자(전화 063-245-6401 / 이메일 service2@mjff.or.kr)로 문의하면 된다.

초여름의 영화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활동가 '산골친구' 모집에 나선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 지역작가 신작 오디오북 출시

전주문화재단, 총 5종 전국 유통... 출시 기념 특별 이벤트도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제작된 전주 지역작가들의 문학작품을 1일부터 전국 유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작가들의 창작물을 보다 널리 알리고, 독자들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작품들은 재단의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제작이 완료된 미발간 작품들로 오디오북과 전자책 형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은 △김영관 시인의 시집 『등 뒤의 그리움』 △김관수 작가의 동시집 『푸른 입체 책으로 놀러 오세요』 △정광덕 작가의 동시집 『빙하였다면 어쩔 뻔했어!』 △장은영 작가의 동화책 『남문장 만세 소리』 △김순정 작가의 동화책 『할아버지의 팽이』 등 총 5종이다.

이들 작품은 전주의 3.1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한 동화부터 인생의 깊이를 담아낸 시까지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구성됐다. 각각의 작품이 지닌 문학적 가치와 감동을 보다 많은 독자와 나누기 위해 오디오북으로 제작, 이를 통해 청취자들은 작품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독자들은 오디오북을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 오디오클럽, 구글플레이, 오디오앤소리 등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재단은 신간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도 한 달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평과 구매편 이벤트는 재단 공식 SNS와 오디오북 유통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지역의 우수한 문학작품이 전주를 넘어 전국의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주 작가들의 오디오북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문화재단은 전국 문화재단 중 최초로 지역 문학작품의 디지털 독서 시장 진입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새로운 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를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 중이며,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오디오북과 전자책 제작 지원, 시상금 형태의 창작지원금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제4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이수정 작가 수상

고창군이 지난달 31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제4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작은 이수정 작가의 '단역배우 김순호 씨'로 상장과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됐다. 이수정 작가는 2000년도 미국으로 이주 후 현재 뉴저지 로컬 도서관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며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도에 단편소설 '소리의 군부'로 제18회 재외동포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2년도 '타이거 마스크'로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2024년 '코타기나발부의 봄'으로 영남일보 신춘문예 당선, 2025년 '술이 차오를 때'로 세계일보 신춘문예도 당선되는 등 꾸준한 작품활동을 펼쳐왔다.

당선작 '단역배우 김순호 씨'는 어머니와 함께 떠난 고창 여행에서 자신의 출생과 가족의 비밀을 알게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가족을 지탱하는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가족과 사랑에 대한 고찰의 배경이 되는 곳이 고창이라는 것에 더 마음이 와닿는다"며, "이번 4번째 수상자가 선정된 고창신재효문학상이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축하를 전했다.

고창신재효문학상은 고창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창작 장편소설을 공모·시상하여 영화·드라마·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으로, 고창을 문화관광지화하고자



고창군이 '제4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작은 이수정 작가의 '단역배우 김순호 씨'로 상장과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됐다.

2021년 제정됐다.

지난 수상작으로는 금파(김해숙/1회), 염부(박이선/2회), 조선사람 히라야마 히데오(이준호/3회)가 있으며 제5회 고창신재효문학상은 오는 8월 31일까지 공모중에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 '벚꽃 버스킹'

남원시는 시립청소년합창단(예술감독 김종희)이 오는 6일 오후 3시, 봄의 정취가 가득한 남원 요천 둔지 십수정 일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봄맞이 수시공연 '벚꽃 버스킹'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벚꽃 버스킹' 공연은 따뜻한 봄날,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음악을 통해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남원의 아름다운 벚꽃을 배경으로 펼쳐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해 음악을 더욱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춘향제전위원회, 춘향제 추진상황 2차 보고

남원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이광연)는 지난 달 30일,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두 번째 위원회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광연 위원장을 비롯한 제전위원, 남원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95회 춘향제 추진 상황(2차) 보고 △제95회 춘향제 제전위원 행사 담당 배정 △춘향제 한복 입기 및 착한가격 캠페인 등의 추진 안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제95회 춘향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전위원들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했으며, 춘향제 기간 진행될 한복 입기 행사와 착한가격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지역 전통과 문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95회 춘향제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관한루원 일원에서 개최해, 다양한 볼거리와 품질 있는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광연 제전위원장은 "한복 입기와 착한가격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관한루

관한루는 조선시대 이광년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관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뿔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